내년 전국체전 대비 재정비

전북체육회, 100회 체전 성과 분석
선수 경기력 향상 방안 마련 돌입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선수단이 입장하는 모습.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내년 경북에서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재정비에 나섰다.

14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에서 펼쳐진 제100회 전국체전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각 종목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은 선수와 임원 등 총 1,607명이 출전해 3만2141점(금 46개 · 은 44개 · 동 77개)을 획득, 종합 11위를 기록했다.

특히 군산시청 소속의 도현국이 전북 육상 마라톤 역사상 24년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육상의 유규민과 수영의 한다경, 자전거 박상훈 등은 대회 신기록을 세워 전북 체육의 위상을 높였다.

이처럼 선수들의 노력으로 당초 전력분석에서 예상했던 종합득점은 비슷하게 나왔지만 경쟁 시도의 예상 밖 선전으로 종합 10위 목표는 아쉽게 이루지 못했다.

이에 도 체육회에서는 이번 대회를 반면교사 삼아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비롯해 우수선수 확보와 선수 저변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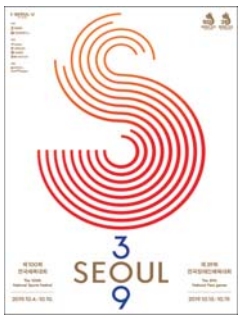
또한 기록종목과 체급종목, 단체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에 나서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행정을 통해 어려운 운동환경을 개선하고 전북도와 도교육청, 종목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전북체육을 한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종목별 · 팀별 문제점과 전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년 전국체전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선수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다함께! 굿세게! 끝까지!'

전국장애인체전 오늘 서울서 개막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포스터

장애인 선수들의 꿈과 열정의 무대인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8978명(선수 6025명 · 임원 및 관계자 268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30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26개 종목에서 카누 · 트라이애슬론(선수부), 쇼다운 · 슐런(동호인부) 등 4개 종목이 전시 종목으로 신설돼 8년 만에 개최 종목이 확대됐다.

지난해에 이어 22명의 해외 동포 선수단도 볼링, 수영, 역도, 필드골프 종목에 참가한다.

장애인체전은 2000년 순회 개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이미 지난 8일부터 카누, 트라이애슬론 사전경기가 시작됐다. 13일 사이클 트랙 선수부 남자 독주 1㎞ C1에서 박창균이 대회 첫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노르딕스키 금메달리스트인 신의현이 출전한다. 한국 장애인 사이클의 간판이자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노르딕스키 국가대표로 활약한 이도연도 나선다.

2016 리우패럴림픽 수영 3관왕 조기성도 출전하고, 2015년 북한 DMZ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가 절단된 전 육군 중사 하재헌도 조정 종목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개회식은 15일 오후 6시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며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다.

식후 행사로 가수 싸이가 축하 공연을 펼친다.

이명호 회장은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의 발전사를 되돌아보고, 장애인 스포츠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 개회식과 종목별 경기는 TV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뉴시스

전주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은 13일 전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K3리그 베이직 최종전에서 울산시민축구단과 1대1로 비기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K3리그 베이직 '준우승'

전주시민축구단, 울산시민축구단과 1대 1 비겨

전주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은 13일 전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K3리그 베이직 최종전에서 울산시민축구단과 1대1로 비기면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이날 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전주(15승 3무 2패 승점 48점)는 울산(15승 4무 1패 승점 49점)과 승점 1점 차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전주는 역전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경기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하는 등 시종일관 상대의 골문을 노렸지만, 오태환과 박주성, 이정우의 슛팅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전반을 0대0으로 마친 전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골을 기록하기 위해 선수를 교체했지만, 후반 13분 울산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이후 전주는 울산에게 우승을 내주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오태환의 헤딩이 골키퍼에 막혔고, 오태환, 김희성의 찬스가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대로 패하면 전주는 3위로 떨어지면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뤄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다급해진 전주는 반격에 나섰지만 실수가 나오는 등 마무리가 부족했다.

전주는 후반 추가시간 프리킥 상황에서 울산 문전에서의 혼란을 틈타 김상민이 동점골을 넣었지만, 역전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날 무승부를 기록한 전주는 15승 4무 2패 승점 49점으로 2위를 기록하면서 K3리그 베이직 준우승과 함께 내년 시즌 K3리그에 승격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전주는 지난 9월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디비전시스템 K3(3부리그)에 참가 신청했다. /장은성 기자

새만금배 보디빌딩 · 뷰티바디 챔피언쉽

제2회 군산새만금배 보디빌딩 대회 & 오픈 뷰티바디 챔피언쉽이 오는 26일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군산시보디빌딩협회 주최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남녀 선수 200여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열리는 대회에는 여자 선수들이 전국 각지에서 폭넓게 출전할 예정이어서 대회장의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디빌딩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군산월명종합체육관에서 치러진 제1회 새만금배 보디빌딩대회 & 오픈 뷰티바디 챔피언쉽에서 전북 최초로 남녀 선수 220여명이 출전했다며 향후 아시아 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도 개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남자축구 평양 남북대결 생중계 '무산'

29년 만의 남북전 생중계는 결국 무산됐다.

공영방송 KBS는 14일 "15일 열릴 예정인 남북 간 경기 중계가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북한은 15일 오후 5시30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H조 조별리그 3차전을 가질 예정이다.

남북 남자 축구대표팀이 북한에서 맞붙는 것은 1990년 10월11일 친선전 이후 29년 만이다.

그러나 북한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북한축구협회 측은 한국의 응원단은 물론 취재진의 방북을 제한했고 대한축구협회(KFA) 지원 인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허가를 내줬다.

생중계 또한 막판까지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무산됐다.

남북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깜깜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